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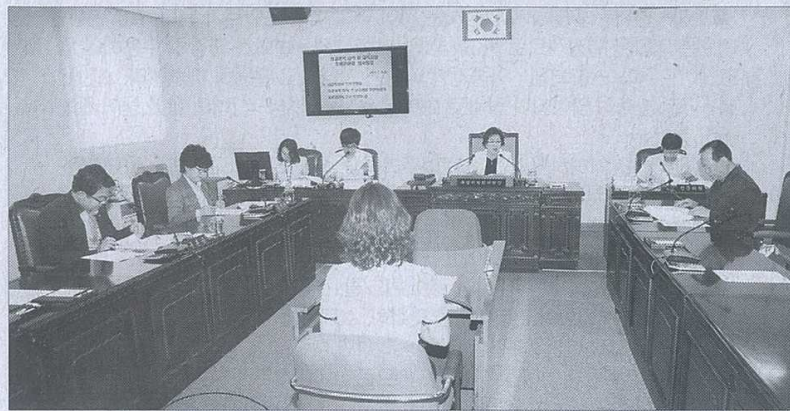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 활동 보도

2015년 7월 6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학교폭력특위가 9개월여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갖고 있다.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9개월간의 활동 마치고 마무리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지난 3일 오후 2시 성과 보고회를 열고 9개월여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했다.

지난해 10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학교폭력특위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학교지원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명숙 위원장과 유인에 부위원장, 구본승 의원, 한동진 의원 등 총 4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펼쳐왔다. 학교폭력특위는 약 9개월간 활동하면서 6

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개최와 2회에 걸쳐 구청 관계부서 업무보고와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원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또한 강북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사단법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시립 강북청소년 드림센터, 강북경찰서, 성북교육지원청, 송중초등학교, 번동중학교 등 직접 현장에 찾아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위원회를 마무리 하면서 김명숙 위원장은 "총 9개월간의 길고 긴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과 교육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다양하면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는 다양한 해결책과 구체적인 조연을 구청 측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그간 열심히 활동해준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강북구의회는 7월10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사프리 9면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3일 오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학교지원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성과 보고회를 열고 9개월여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했다.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학교폭력특위)는 김명숙 위원장과 유인에 부위원장, 구본승 의원, 한동진 의원 등 총 4명의 위원이 약 9개월간 활동하면서 6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개최와 2회 걸친 구청 관계부서 업무보고와 대책회의 개최, 지원강화를 위한 서울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또한, 강북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사단법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시립 강북청소년 드림센터, 강북경찰서, 성북교육지원청, 송중초등학교, 번동중학교 등 직접 현장에 찾아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위원회를 마무리 하면서 김명숙 위원장은 "총 9개월간의 길고 긴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과 교육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다양하면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는 다양한 해결책과 구체적인 조연을 구청 측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그간 열심히 활동 해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오는 10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유영일 기자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 활동 마무리

학교폭력과 교육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다양하면서
적극적인 활동 펼쳐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은 지난 3일 오후 2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학교지원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성과 보고회를 열고 9개월여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했다.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학교폭력특위)는 김명숙 위원장과 유인에 부위원장, 구분승 의원, 한동진 의원 등 총 4명의 위원이 약 9개월간 활동하면서, 6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개최와 2회 걸친 구청 관계부서 업무보고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원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

또한 강북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북구



▲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장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사단법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시립 강북청소년 드림센터, 강북경찰서, 성북교육지원청, 송중초등학교, 번동중학교 등 직접 현장에 찾아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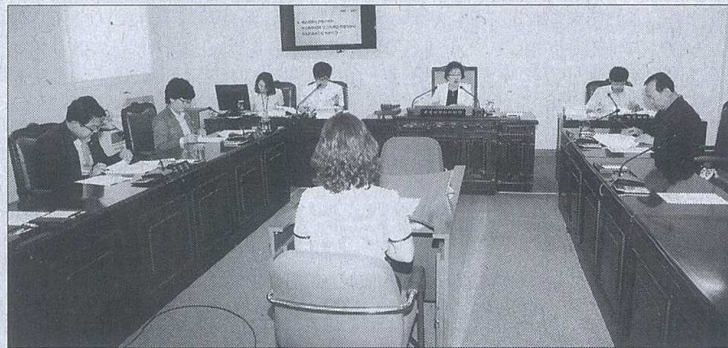
이날 위원회를 마무리 하면서 김명숙 위원장은 “총 9개월간의 길고 긴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

해 학교폭력과 교육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다양하면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는 다양한 해결책과 구체적인 조인을 구청 측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그간 열심히 활동해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강북구의회는 7월 10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김명숙 위원장 10일 활동 결과 보고서'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3일 오후 2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학교지원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숙)성과 보고회를 열고 9개월여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했다.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학교폭력특위)는 김명숙 위원장과 유인에 부위원장, 구분승 의원, 한동진 의원 등 총 4명의 위원이 약 9개월간 활동하면서, 6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개최와 2회 걸친 구청 관계부서 업무보고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원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

또한 강북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사단법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시립 강북

청소년 드림센터, 강북경찰서, 성북교육지원청, 송중초등학교, 번동중학교 등 직접 현장에 찾아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위원회를 마무리 하면서 김명숙 위원장은 “총 9개월간의 길고 긴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과 교육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다양하면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는 다양한 해결책과 구체적인 조인을 구청 측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그간 열심히 활동 해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강북구의회는 7월10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